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제25회 별나라
여행축제' 7일 개최

우주의 경이로움과 과학의 흥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25회 별나라 여행축제'가 개최된다.

정읍시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지역 대표 과학문화축제인 '별나라 여행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이 축제는 정읍천문연구회, 전주기상지경, 국립전북기상과학관, 혜성(정주고등학교 과학동아리)이 공동 주최하고, 시와 정읍교육지원청, 정주고등학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후원한다.

'달과 별, 우주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년 약 2000여 명이 찾는 지역 대표 과학문화 축제로,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풍천장어 미국
한남체인에 수출

고창군의 대표 수산물 풍천장어가 미국 한인 유통업체인 '한남체인(HanNam Chain)'에 수출되며 미국 입맛을 사로잡는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풍천장어 0.5톤(시가 2000만원 상당)이 미국 한남체인에 수출돼 향후 LA 한남체인 8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이번 장어 수출은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창 농특산물 LA 관측 행사와 고창군과 한남체인 수출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남체인은 연 매출 35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대표 한인 유통망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창군은 장어를 비롯한 복분자, 주, 멜론 등 다양한 농특산물의 미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쫄쫄한 육질과 담백한 맛, 고단백·저지방 영양식으로 알려진 풍천장어는 건강을 중시하는 현지 미국 소비자층의 수요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농업 '데이터 날개' 단다

농기센터, 과학영농 통합관계체제로 기후변화 대응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농업 현상이 직면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기술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4억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계 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의 농업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작물생육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각 농가에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물별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 최종적으로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대상 작물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등 양액재배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채소다. 이들 작물의 재배 환경에서 온도·습도, 토양의 온도와 수분 상태, 전기전도도(EC), 배지의 무게, 공급되는 물의 양과 배수량, 일사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맞춤형 작물 생육 모델을 구축하고 각 농가별 환경제어 시스템에 반영돼 활용된다. 예를 들어 여름철 고온 발생 시 자동으로 차광막이나 포그분무기를 가동하고, 토양 내 양분 농도 변화에 따라 비료 투입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등 작물별 맞춤형 스마트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으로 전송돼 작물별 농업환경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이는 작물별 생육 예측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 농가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한국형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는 관계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플랫폼 구축과 함께 시범적인 운영을 위해 15개 농가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학영농 통합관계체계 구축사업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관리 시스템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리적표시 116호(농산물품질관리원) 마크를 단 오리자널 고창수박이 여름철 과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고창수박, 소비자 사로잡았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기념 신세계백화점 본점 판촉행사

'지리적표시 116호(농산물품질관리원)' 마크를 단 오리자널 고창수박이 여름철 과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민국 유통가의 1번지로 일컬어지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시 중구 소곡로31)' 광장에서 고창수박 대규모 판촉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 회 회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수박연합회와 수박농가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고창수박 무료시식 부스에는 길게 줄이 이어졌고,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에 소비자들은 연신 엄지를 치켜세웠다. 한 소비자는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지리적표시제 마크가 있어서 믿고 살 수 있게 되어서 좋다"고 말했다.

아날 오전에 열린 명품수박 경진대회에선 박형남(무장면)씨의 수박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 수박을 대상으로 현장경매를 통해 500만원의 낙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박형남씨는 " 그동안 박스같이 등으로 고창 수박농가의 피해가 컸는데, 소비자들이 고창수박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농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최고 품질 고창수박의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고창군에서도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A등급' 쾌거

통합마케팅의 정석을 보여준 정읍단종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 이하 정읍조공)이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A등급을 받아 도비 인센티브까지 확보했다.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정읍조공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말 기준 통합마케팅 운영 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비 인센티브 6,2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16개 통합마케팅 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13개소, 품목광역조직 3개소)을 대상 출하율, 조직화 참여도, 매출 성과, 농가 환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정읍조공은 지난해 한 해 동안 244억

원의 매출과 8,900톤의 출하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공선출하회 12개 조직, 총 387농가가 참여하는 등 조직화 기반이 탄탄하게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농업인 수수료 보전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 활동이 조직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생산자 실익에 집중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이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예산을 농산물 상품화, 공동출하 지원, 유통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에 목표인 200억원 달성을 위해 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 농가, 행정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대선 정치적 중립 · 선거사무 철저”

6월 열린 공감의 날 강조… “여름철 위생 · 방역 관리 만전” 도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선거사무 처리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2일 열린 6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8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라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사무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단 한 건의 착오 없이 책임감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소중한 한 표는 부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부안



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지난해 우리 지

역에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처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며 “여름철 위생·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8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 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매력의 정수 담았다… ‘3미·6품·9경’ 최종 선정

정읍시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선정된 대표 음식·특산물·관광지를 담은 정읍보물 300 브랜드를 최종 확정했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관광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 정읍의 대표 음식 3미(味), 특산물 6품(品), 관광지 9경(景)을 최종 선정했다.

정읍의 대표음식 3미(味)는 정읍 쌍화차, 정읍 한우, 내장산 산채비빔밥, 대표특산물 6품(品)은 정읍 귀리, 정읍 씨없는 수박, 정읍지황, 정읍 막걸

리, 청명주, 정읍 자생치를 선정, 대표 관광지 9경(景)은 내장산 국립공원, 정읍 구절초지방정원, 정읍사공원과 달빛사랑숲,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무성사원, 용산호, 피향정, 월영습지와 솔티숲 김명관고택을 선정하였다.

정읍보물 선정은 지난 1~2월 시민 제안 공모로 접수된 1500여 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1차로 10미, 18품, 21경'을 선정하고 다시 전국적인 오프라인·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해 총 6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후보군(6미, 10품, 15경)을 추렸다. 이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읍보물 3미·6품·9경이 결정됐다.

이날 확정된 3미·6품·9경을 재정비에 정읍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관광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민의 음식과 특산물, 관광자원을 활용해 정읍다움을 표현하고, 이 소중한 자원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관광콘텐츠로 체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읍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